

# 북한경제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jklee@kdi.re.kr

## 1. 머리말

최근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매우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 6월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우 전쟁에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이러한 기조는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최근의 상황은 다소 과장하자면 '러시아 올인(all-in)'으로까지 비칠 가능성이 있다. 양국 간 밀월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기조는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북한경제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물론 북한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같이 러시아에 편중된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경우 북한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의 대외 경제 의존 구조와 그 변화를 파악하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북한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경제와 외화 수급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는 무역, 투자, 노동자 파견,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북·중 vs 북·러 경제 관계

이번 장에서는 북·중과 북·러의 경제 관계를 단순 비교해 보도록 할 것이다. 중국 및 러시아의 기본적인 경제 규모만 봐도 차이는 쉽게 가늠할 수 있으나, 북한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역, 투자, 노동자 파견, 관광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sup>1)</sup>

### 1. 무역 측면

먼저 기본적인 대외무역액부터 확인하면, 2000년대 중국과 무역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중 무역액은 2000년 4.9억달러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6년까지 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북·중 무역액이 65.3억달러에 달하게 되었다(KOTRA 기준).<sup>2)</sup> 특히 2014년부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전체 무역액이 급감한 코로나 봉쇄 기간에도 이러한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sup>3)</sup> 이에 반해 대러 무역의 경우 무역액 자체가 등락을 반복했으며, 그 폭도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초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무역액이 2.3억달러,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2000년대 최고치였고,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낸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대외무역 비중이 1% 초반대를 차지하는 데 그칠 정도로 러시아가 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직관적으로 단순 비교를 하면, 2000년부터 코로나 봉쇄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까지 대중 무역은 연평균 33.2억달러였던 데 반해, 대러 무역은 연평균 1.2억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적인 차이가 크다. 이와 같이 규모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두 국가의 무역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1) 장형수(2013)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 항목을 상품수지와 무기수출입수지, 서비스수지(관광수입, 용선료, 보험료 청구 등), 소득수지(해외투자기업 수익, 해외 파견 근로자 임금 등), 자본수지(양허성 차관 공여, 직접투자 등), 경상이전수지(송금, 무상 원조, 비핵화 지원 등)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2) KOTRA뿐 아니라 UN Comtrade에서 제시된 통계도 중국 해관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증가율 면에서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나, 대외무역 비중 면에서는 다소 다른 수치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2000~16년까지 중국의 비중은 KOTRA 기준으로 평균 67%이나, UN Comtrade 기준으로는 52%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KOTRA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을 집계하는 반면, UN Comtrade의 경우 전체 대외무역 상대국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잡는 데다가 약간의 오류(한국 데이터 포함 사례 등)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전체 무역액이 KOTRA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이석 편, 2013). 특히 UN Comtrade의 경우 2020~22년까지 북·중 무역이 과소 집계된 수치를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데이터 누락 등의 문제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고에서는 KOTRA 기준의 통계치만 제시했다.

3) 코로나19 봉쇄가 시작된 2020년에만 88.2%를 기록.

〈표 1〉 북한 대외무역 비교: 대중 vs 대러

(단위: 만달러)

연도	전체	중국	러시아
2000	196,954	48,804 (24.8%)	4,629 (2.4%)
2001	27,050	73,746 (32.5%)	6,834 (3.0%)
2002	226,039	73,817 (32.7%)	8,069 (3.6%)
2003	239,137	102,293 (42.8%)	11,837 (4.9%)
2004	285,711	138,521 (48.5%)	21,342 (7.5%)
2005	300,168	158,034 (52.6%)	23,230 (7.7%)
2006	299,580	169,960 (56.7%)	21,064 (7.0%)
2007	94,108	197,397 (67.1%)	15,961 (5.4%)
2008	381,569	278,728 (73.0%)	11,052 (2.9%)
2009	341,382	268,073 (78.5%)	6,169 (1.8%)
2010	417,441	346,568 (83.0%)	11,058 (2.6%)
2011	635,706	562,937 (88.6%)	11,282 (1.8%)
2012	681,128	601,254 (88.3%)	7,593 (1.1%)
2013	734,479	654,653 (89.1%)	10,422 (1.4%)
2014	761,088	686,399 (90.2%)	9,234 (1.2%)
2015	625,182	571,041 (91.3%)	8,437 (1.3%)
2016	653,169	605,644 (92.7%)	7,690 (1.2%)
2017	554,990	525,869 (94.8%)	7,784 (1.4%)
2018	284,348	272,294 (95.8%)	3,407 (1.2%)
2019	324,494	309,440 (95.4%)	4,790 (1.5%)
2020	86,297	76,080 (88.2%)	4,266 (4.9%)
2021	71,333	68,166 (95.6%)	4 (0.0%)
2022	158,561	153,249 (96.7%)	-
2023	276,912	272,110 (98.3%)	-

자료: KOTRA([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530](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530), 접속일: 2024. 11. 20).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양적인 면보다도 질적인 측면에서 양 국가가 북한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여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두 국가의 산업 및 무역 구조가 완전히 다르며, 중국이 북한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나, 러시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보자. 중국의 경우 전 세계로부터 수입한 금액과 품목의 수가 2010년 1.4조달러(702개), 2016년 1.5조달러(733개), 2023년 2.6조달러(768개)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2010년 2,289억달러(436개), 2016년 1,819억달러(476개), 2020년 2,311억달러(522개)였다. 북한 역시 중국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24.3억달러를 수출했고, 수출한 품목도 260개 이상이었으며, 석탄, 철광석, 의류를 통해 외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반면 러시아에는 연평균 270만달러만 수출했고, 품목도

<표 2> 북한의 수출 금액, 품목 수, 주요 품목: 대중 vs 대러

(단위: 만달러, 개)

연도	금액(만달러)		HS4 품목 수(개)		주요 품목	
	중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2010	118,786	1,638	259	175	석탄, 철광석, 선철	천연 모래, 전자기기, 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 등
2011	246,419	1,449	260	147	석탄, 철광석, 남성 코트	천연 모래, 화학용 조제 점결제, 일반 의류
2012	248,470	1,088	303	131	석탄, 철광석, 남성 코트	일반 의류, 천연 모래, 철강 평판압연제품
2013	291,154	926	261	130	석탄, 철광석, 남성 코트	남성 슈트, 관악기, 자주식 볼도저·앵글 도저 등
2014	284,148	983	266	115	석탄, 철광석, 남성 코트	남성 슈트, 관악기, 금속가공 공작기계
2015	248,394	57	278	21	석탄, 남성 코트, 남성 슈트	관악기, 플라스틱 제품, 방직용 섬유
2016	263,440	424	264	37	석탄, 남성 코트, 남성 슈트	차량 부속품, 남성 슈트, 관악기
2017	165,067	395	249	50	석탄, 남성 코트, 연체동물(냉동 오징어 등)	남성 슈트, 관악기, 화학용 조제 점결제
2018	19,458	200	134	35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합금철, 가발·가수염 등	관악기, 프로펠렌 중합체 등, 차량 부속품
2019	21,552	303	99	51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합금철, 가발·가수염 등	관악기, 기체·진공펌프, 의료용 혈액
2020	4,800	71	62	30	전기에너지, 합금철,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관악기, 플라스틱 제품, 의자
2021	5,789	4	27	3	합금철, 전기에너지,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미용·메이크업 제품, 가황 고무 제품, 개스킷 등
2022	13,441	-	39	-	팅스텐광, 합금철, 전기에너지	-
2023	29,241	-	73	-	합금철, 텅스텐광, 가발·가수염 등	-

자료: KITA(<https://www.kita.net/>, 접속일: 2024. 11. 20).

2015년부터는 100개 미만으로 감소할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일부 의류, 관악기 등이 꾸준히 수출되었으나, 외화 획득 측면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

아직 북한경제는 중간재 등 산업에 필요한 품목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처지기 때문에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 수입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중국은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는 반면, 러시아는 매우 한정적인 물자만 수출한다. 일례로 중국은 전 세계로 3.4조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2023년 기준), 품목도 전자 제품, 자동차, 각종 부품 등 매우 다양하지만(929개), 러시아의 수출은 4,181억달러에 그치고 있으며(2019년 기준), 원유, 석유·역청유, 석유가스, 석탄, 기타 등 5대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62%에 달한다(322개).<sup>4)</sup> 이러한 경향은 북한에 대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데, 북한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에서 31.7억달러를 수입했으며, 품목도 900개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다양하다. 이에 반해 대러 수입의 경우 889만달러를 수입하는 데 그쳤고 품목도 150개 내외이며, 그것도 석유, 원유, 밀 등의 비중이 높아 산업의 중간재 조달과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북한의 수입 금액, 품목 수, 주요 품목: 대중 vs 대러

(단위: 만달러, 개)

연도	금액(만달러)		HS4 품목 수(개)		주요 품목	
	중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2010	227,782	4,578	920	124	원유, 석유·역청유, 화물 자동차	석유·역청유, 석탄, 원목
2011	316,501	9,916	912	215	원유, 석유·역청유, 화물 자동차	석유·역청유, 밀, 밀가루
2012	344,584	5,797	922	164	원유, 석유·역청유, 화물 자동차	석유·역청유, 철도용·궤도용 선로 건설 재료, 밀
2013	363,315	10,342	899	170	원유, 화물 자동차,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석유·역청유, 석탄, 선박의 데릭·크레인
2014	352,252	8,060	896	139	석유·역청유, 전자기,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석유·역청유, 특수 용도 차량, 밀
2015	294,646	7,828	883	150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석유·역청유, 화물 자동차	석탄, 석유·역청유, 밀
2016	319,203	6,791	889	118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화물 자동차, 석유·역청유	석탄, 갈탄, 밀가루
2017	332,803	3,960	883	172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대두유	석탄, 갈탄, 석유·역청유
2018	221,714	3,215	793	94	대두유, 질소비료,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석유·역청유, 대두유, 밀가루
2019	258,888	4,638	719	103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대두유, 쌀	석유·역청유, 대두유, 밀
2020	49,104	4,248	576	65	대두유, 밀가루, 사탕수수·사탕무 당	석유·역청유, 대두유, 밀
2021	26,131	0	248	0	의약품, 담배,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
2022	89,534	-	492	-	대두유, 의약품,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
2023	203,025	-	609	-	인모, 대두유,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

자료: KITA(<https://www.kita.net/>), 검색일: 2024. 11. 20).

4)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이 없는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다.

종합하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양국의 대외무역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러시아가 대외무역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구조라는 것이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갑자기 바뀔 것으로 보이기도 않는다. 특히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중국과 대외무역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고려할 때 대중 무역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러 무역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 2. 투자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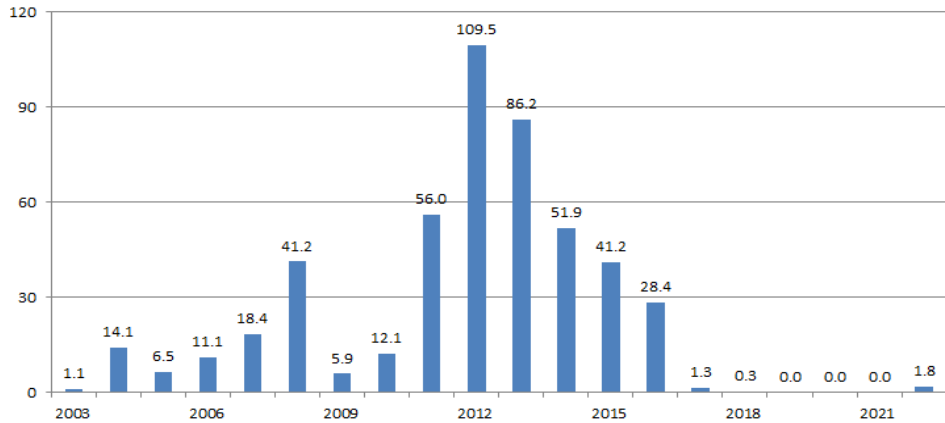
투자에서도 중국은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안정적인 공급처로 역할을 해왔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대북 투자는 저량(stock) 기준으로 전체의 57%를 기록했고, 유량(flow) 기준으로 연평균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규 2021). 중국의 대북 투자는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북제재 이전까지(2003~16년) 연평균 3,450만달러였으며, 코로나19 이전(2003~18년)까지도 3,030만달러를 기록했다. 절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으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국가이고,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투자를 하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업별로 보고자 한다면 오픈소스센터(Open Source Center: OSC, 2012)의 데이터가 여전히 유용하다. 여기에는 1985년부터 2011년까지 대북 투자를 한 전 세계 351개의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 중 중국 기업은 205개나 되어 전체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통계자료에는 국적을 식별할 수 없는 기업이 82개나 되는데, 이들을 모수에서 제외할 경우 중국의 비중은 76%로 상승하게 된다.<sup>5)</sup> 또한 중국 기업들은 ‘광업(41%), 경공업(12%), 서비스업(11%), 중공업 및 건설(10%), 식품 및 농업(10%)’ 등의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으며, 이들이 대부분 대북 투자의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종규 2021).

5) OSC 데이터가 2011년까지만 통계를 제공하여 한계가 있으나, 이후에도 중국의 대북 투자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중국의 대북 투자: 2003~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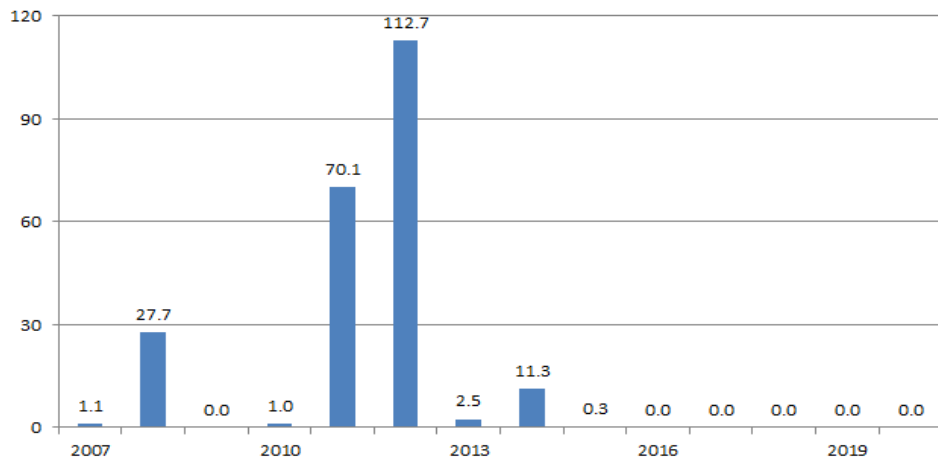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자료: 이종규,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정책연구시리즈, 2021-07, 한국개발연구원, 2021, p.22; CEIC를 통한 중국 상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러시아의 대북 투자: 2007~19년

(단위: 백만달러)



자료: 이종규,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정책연구시리즈, 2021-07, 한국개발연구원, 2021, p.26; 러시아 연방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러시아의 대북 투자는 중국과 비교하여 연도별로 편차가 크게 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만 투자가 집중되었을 뿐, 2008년과 2014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2011년과 2012년에 투자가 된 것도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인해 철도를 비롯한 각종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OSC,

2012). 통계에서도 러시아 기업의 투자는 전체 351개 기업 중 2개 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고, 이들은 화물 및 중공업과 관련된 기업이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양국의 대북 투자를 연평균으로 계산하여 비교했다. 데이터가 가용한 2007~17년까지 러시아의 대북 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2,270만달러였으나,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투자액은 연평균 4,110만달러에 달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액 추세도 중국이 훨씬 많아서, 러시아의 경우 658억달러(2021년 기준)였으나, 중국은 1,788억달러였다.

무엇보다 러시아 대북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도별로 불안정하고, 분야도 다양하지 못한 데다 이벤트성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러시아 해외투자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데, “전체 투자의 2/5가 키프로스, 버진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버뮤다군도, 바하마제도 등과 같은 역외지역 및 조세 피난처”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이재영 외, 2012). 이는 러시아의 해외투자 중 상당 부분이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실질적인 산업 발전과는 무관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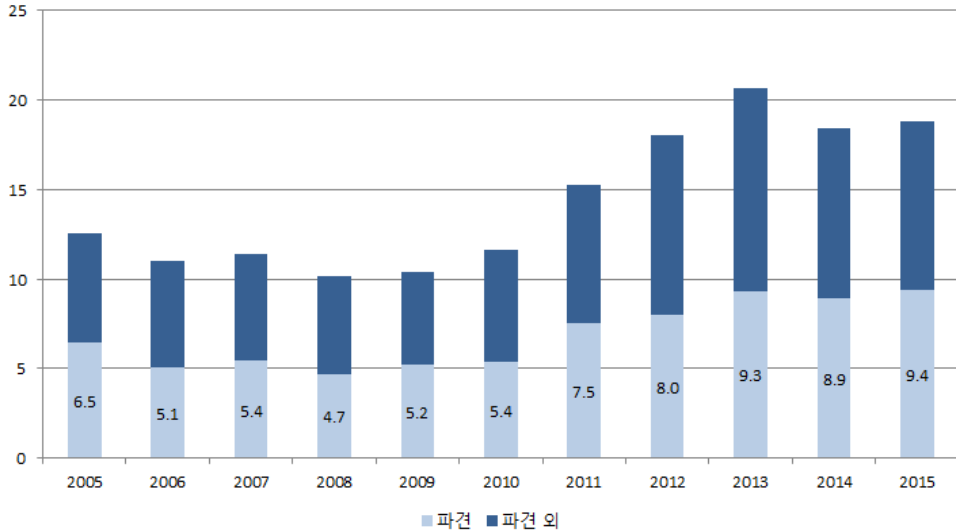
### 3. 노동자 파견 측면

그동안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상당 부분의 외화를 획득해 왔으며, 대북제재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여전히 중요한 외화 확보 채널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 노동자 송출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이었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내 인력 수요 급증 등으로 북한의 대러 노동자 파견은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먼저 북한의 연도별 중국 및 러시아 방문자 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중국은 2015년까지 비교적 자세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했으나, 현재 이러한 자료를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없다. 후에 서술하겠지만, 최근까지도 상세한 입국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러시아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노동자 송출을 분석한 연구를 참고하여 파견자 수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영운(2017)이 정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4.4만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이 중 파견으로 분류된 인원만 연평균 6.9만명 정도 되었다.

[그림 3]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 수

(단위: 만명)



자료: 최영운,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7, p.113.

특히 대북제재가 북한의 노동자 송출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불법 취업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2024)에 의하면 “10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약 40개국에서 봉제, 건설, 의료, 정보기술, 음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렇게 파견된 노동자들을 통해 연간 약 5억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추정했다.<sup>6)</sup> 만약 IT 관련 노동자들까지 합한다면 이들을 통한 수익은 최소 7.5억달러에서 최대 11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sup>7)</sup> 제재 이전 북한이 대중 무연탄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연간 금액이 11억달러 내외였던 점을 감안한다면(2011~16년), 노동자 송출 하나만으로 제재로 인한 타격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록 최근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북한 노동자를 잔류시키거나 새롭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학생·관광

6) “According to a Member State, more than 100,000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orkers are still working overseas generating revenu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ocated in approximately 40 countries and working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sewing, construction, medicine, information technology and food service. A second Member State estimated tha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verseas workers other than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generate annual revenue of approximately \$500 million. According to the first Member State, these workers are initially dispatched on student or tourist visas; some use false nationalities and identity card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680 (2023)*, 7 March, 2024, p.50~51.

7)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2024)는 IT 관련 북한의 인력 송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최소 2.5억달러에서 최대 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표 4>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내 북한 식당

도시	식당명
선양 (17개)	달맞이식당, 평양관, 능라도, 평양동묘향산식당, 금평양관, 모란관, 회령관 등
단둥 (13개)	능라도, 대보산, 류경식당, 평양고려식당, 단둥고려식당, 고려향, 송도원 등
장춘 (8개)	한장, 진흥조선관, 남양촌, 인풍각 1호점, 인풍각 2호점 등
북경 (7개)	평양은반관, 옥류관, 금강산, 평양능라도, 류경해당화, 평양민들레식당 등
상해 (7개)	모란봉 음악식당, 단골집 조개구이, 상인생활수세계, 양광록주생태주점 등
연길(6개)	매화개장집, 우의식당, 연향꼬치집, 류경식당, 한성식당, 해란강돌솥밥
대련 (2개)	홍빈루은별식당, 류경식당
훈춘 (2개)	훈춘묘향식당, 평양두만강불고기
지안/우시/두만 (각 1개)	묘향산식당, 강뚝꼬치구이전문점, 아리랑식당

자료: UN Security Council, 2024, p.363~374.

비자를 활용하여 파견되고 있으며, 일부는 가짜 신분증이나 국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2024)는 불법 노동자를 받은 중국 내 65개의 식당을 보고했는데, 러시아, 라오스 등을 포함한 70개 이상의 식당에서 연 매출 7억달러 정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sup>8)</sup>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최근까지 자세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 연방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연감을 통해 러시아에 등록된 북한 주민 수와 말소된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로 이주를 위해 등록하는 북한 주민 수는 2010년까지는 미미하다가 201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최대치인 7,377명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반해 말소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노동자 파견에 대한 대북제재가 시작된 2017년으로 6,824명, 2018년 6,038명을 기록했다.

한편 취업 허가를 받은 인원의 경우 2017년까지 연평균 24,594명 정도 되었으며, 연방 통계청의 고용노동통계 보고서(2015)에 의하면 취업 허가를 받은 72.7%의 북한 노동자가 별목, 광업, 건설, 수리 노무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2014년 기준). 하지만 취업 허가를 받았던 북한 노동자는 대북제재와 함께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부터는 아예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9)</sup>

8) 물론 보고서의 추정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홍제환(2024)은 “규모가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70개 식당에서 연 매출 7억 달러를 기록하려면 하루 평균 매출이 3만달러에 육박해야 하는데, 이 정도로 성업 중인 식당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식당에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식당 운영이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9) 이는 대북제재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러시아 내 등록·말소 북한 주민 및 취업 허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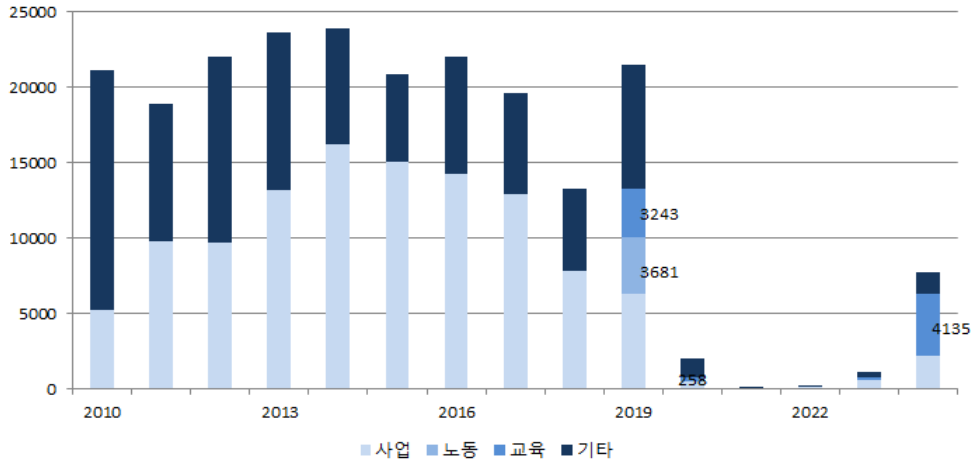
	등록자 수(명)	말소자 수(명)	증감(명)	취업 허가(명)	전체 해외 노동자 대비 비율(%)
2000	32	-47	-15	8,700	4.1
2001	40	-40	0	9,900	3.5
2002	19	-20	-1	12,700	3.5
2003	5	-11	-6	13,200	3.5
2004	2	-8	-6	14,700	3.2
2005	5	-5	0	20,100	2.9
2006	2	-3	-1	27,700	2.7
2007	73	-4	69	32,600	1.9
2008	63	-19	44	34,900	1.4
2009	107	-2	105	37,700	1.7
2010	59	-15	44	36,500	2.2
2011	1,948	-152	1,796	19,300	1.9
2012	4,168	-1,603	2,565	23,400	2.0
2013	5,023	-3,891	1,132	27,200	2.5
2014	6,308	-4,789	1,519	30,700	2.9
2015	6,079	-6,480	-401	33,100	1.8
2016	7,377	-6,077	1,300	33,100	2.0
2017	6,031	-6,824	-793	27,200	1.5
2018	1,786	-6,038	-4,252	8,900	0.5
2019	1,593	-1,906	-313	1,500	0.1
2020	231	-1,012	-781	0	0
2021	248	-146	102	0	0
2022	150	-351	-201	0	0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통계연감(2003~23년)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최근 NK News는 연방 보안국(FSB)에서 입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입국했는지 확인했다. 본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입국 수를 확인하면 제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7년까지 연평균 21,520명의 주민이 들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북한 주민이 관광, 개인, 운송, 경유를 모두 합한 기타 사유보다 훨씬 많았다. 셋째,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거의 없다가 2024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7,771명). 넷째,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사업,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목적의 입국이 늘어났다. 특히 노동 관련 통계가 갑자기 포함되면서 3,681명이 늘어난 것도 특이했다. 다섯째, 교육 목적 입국이 2019년과 2024년에 각각 3,243명과 4,135명으로 갑자기 크게

[그림 4]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주민 수

(단위: 명)



주: 기타에는 관광, 개인, 운송, 경유가 포함.  
자료: NK News, "Record Number of North Korean Students Entered Russia in Q3" (<https://www.nknews.org/>, 접속일: 2024. 11. 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불법 노동, 병력 파병 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내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북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CNA(2024, p.4~5) 보고서는 러시아가 약 500만명의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2023년 기준), 이 중 전쟁으로만 약 100만명의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35%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봤다.<sup>10)</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러시아 노동자 파견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4. 관광 측면

끝으로 관광 측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과 북한 모두 방북 관련 통계를 최근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김한규(2019)는 중국 국가여유국 자료를 통해 북한에 입국한 중국인 수를 확인했는데, 2010년 13.1만명에서 2013년 20.7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2010년 북한이 단체 관광객 목적지 국가로 지정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면서 이러한

10) 전체 100만명의 노동력 감소 중 30만~50만명은 동원령으로 군에 징집되었고, 50만명 이상은 해외로 떠난 것으로 추정.

〈표 6〉 방북 중국인 관광객 수

(단위: 만명,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국 관광객	13.1	19.4	23.7	20.7
전년 대비 증가율	-	48%	22%	-13%
중국 전체 출국 관광 증가율	-	22%	18%	18%

주: 상기 수치는 관광 목적 포함 모든 형태의 방문객 수치일 것으로 추정.  
 자료: 김한규(2019,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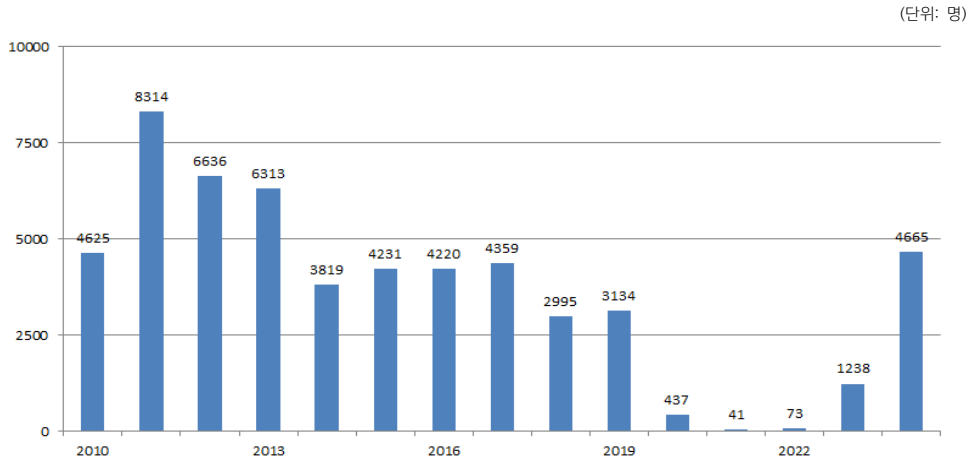
수치는 급감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정부의 방북 관광 관련 중국 여행사에 대한 방한 비자 대행 권한 취소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 이후 방북 관광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방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012년 기록된 방북 수치는 관광의 정점 수준으로 파악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11)</sup>

중국의 방북 관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한다면 개별 여행사 등을 통해 집계하여 추정하거나 단편적으로 보도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대략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예를 들면 김지연 외(2013)는 “2012년도 북한에 엔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 수는 최소 51,340명에서 최대 61,340명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2,169만~3,462만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VOA(2019. 9. 5)에서는 다양한 방북 관광상품 가격을 직접 조사했는데, “단둥-신의주 반나절 또는 당일치기 여행 상품은 1인당 20~60달러 수준이고, 단둥에서 출발해 평양과 판문점을 방문하는 4일 일정의 상품은 420달러에 제공되며, 평양과 판문점을 포함한 5박 6일 여행 상품은 항공료를 포함해 약 730달러에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NK News가 입수한 연방 보안국(FSB) 자료에 의하면 방북 러시아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4,867명 정도 되었다. 코로나19 봉쇄 이후 방북 숫자가 급감하기도 했으나, 최근 방북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2024년 3분기까지 방북한 러시아인은 총 4,66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북·러 관계가 최근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러시아인의 방북 경로에서 항공을 통한 입국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이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달 개최된 북·러 정부 간 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전세기 운항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러시아 주요 대도시에서 북한으로 직항 노선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도 발표했다.<sup>12)</sup>

11) 이상근(2024)의 경우 “2019년 약 26~30만명의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여 정점을 찍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대다수인 약 90%가 중국인이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12) ‘뉴시스’, 「북한-러시아 전세기 증편 합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15146?sid=104, 접속일: 2024. 11. 22).

[그림 5] 방북 러시아인 수



자료: NK News, "Record Number of North Korean Students Entered Russia in Q3" (<https://www.nknews.org/>, 접속일: 2024. 11. 20).

이와 같은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내년에는 방북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방북하는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보다 훨씬 부족하며, 대다수가 항공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상근(2024)에 의하면 “러시아 극동지역은 인구도 적고 소득수준도 낮아서 북한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다. 그러므로 러시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인구가 많고 소득도 높은 서부지역 주민들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서부지역 주민들은 러시아 내 이동을 위해 북한 관광 비용과 맞먹는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북한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 III. 파급효과 비교

앞서 우리는 무역, 투자, 노동자 파견, 관광 등의 분야에서 북·중과 북·러의 경제 관계를 비교했다. 이번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이미 살펴봤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한꺼번에 비교하고자 한다. 외부 변수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코로나19 봉쇄가 시작된 2019년을 제외했으며, 대북제재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17년과 2018년도 제외했

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까지의 연평균 데이터만 사용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비교했고, 중국 대비 러시아의 비율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수출입을 포함한 대외무역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규모 차이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동 기간 대외무역은 중국과 무역이 연평균 57.5억달러에 달했던 반면 러시아와 무역은 9,388만달러에 그칠 정도였으며, 비율로 보면 중국의 1.6%밖에 되지 않았다.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보면, 북한이 무연탄, 철광석, 의류 등 대중 수출을 통해 연평균 24.2억달러의 외화를 획득했던 반면, 러시아에는 938만달러 정도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대중 수출이 무연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는 했으나, 수출 품목이 연평균 270개 정도 되었던 반면, 대러 수출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8개에 불과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수출시장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북한경제는 외부 세계에서 중간재 등의 물자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중국에서 31.7억달러를 수입한 반면, 대러 수입액은 7,616만달러에 불과했다. 비율로 보면 중국의 2.4% 정도이다. 품목 수의 차이도 커서 중국에서 연평균 903개 품목을 수입했으나, 러시아에서 수입한 품목은 154개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아무리 북·러 관계가 밀착한다고 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러시아의 무역 구조 자체가 원유, 석유, 석유 가스, 석탄, 기타 자원 등 5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이미 너무 큰 상황이고(60% 이상), 이것이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대북투자의 경우 동 기간 연평균으로 중국이 4,508만달러를 투자했고, 러시아가 2,267만달러 투입하여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어느 정도 중국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자세하게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의 대북 투자는 2011년과 2012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위해 집중되었던 측면이 있고, 이 시기 전후로는 투자 관련 통계 기록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더구나 중국의 투자가 광업, 경공업, 서비스업, 중공업 및 건설, 식품과 농업 등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는 반면, 러시아의 투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으로 인프라 건설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벤트성 투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파견자의 경우 데이터 사용 제한으로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의 연평균을 사용하였다. 비록 통계 문제로 동 기간을 이용했으나, 이 기간에 북한 주민의 방중 및 방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의 경우 연평균 8만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파견을 목적으로 방문했으며, 러시아는 관광을 제외한 모든 목적의 방문이 2.1만건 정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러 관계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노동시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파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본고에서 비교했던 네 가지 분야 중 중국과 편차를 가장 빠르게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부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관광의 경우 역시 통계의 제약으로 전체 방북자를 중심으로 집계하였으며, 기간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사용했다. 방문자 통계와 마찬가지로 방북 수준도 이때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정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 방북이 연평균 19.2만명이었으나, 러시아의 경우 6,472명에 불과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대부분 항공편으로 방북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점에서 러시아에서 관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표 7> 북·중 vs 북·러 비교(연평균)

항목	단위	기간	중국(A)	러시아(B)	러시아의 비율 (중국 대비)
전체 대외무역액	만달러	2010~16년	575,499	9,388	1.6%
북한의 수출 금액	만달러	2010~16년	242,973	938	0.4%
북한의 수입 금액	만달러	2010~16년	316,898	7,616	2.4%
북한의 수출 품목	개	2010~16년	270	108	40.0%
북한의 수입 품목	개	2010~16년	903	154	17.1%
대북 직접투자액	만달러	2007~16년	4,508	2,267	50.3%
방문자	명	2010~15년	80,900	21,174	26.2%
방북자	명	2010~13년	192,250	6,472	3.4%

주: 1) 파견자는 중국은 국가여유국 통계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러시아는 전체 방문자 수에서 관광 목적을 제외한 수치를 사용.  
2) 방북자는 관광을 비롯하여 모든 목적의 방북을 포함.

이렇듯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북·중 및 북·러 경제 관계의 파급효과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북한 산업연관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지며, 북·중 및 북·러 간 산업별 거래 규모와 구체적 배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까지 안고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 산업연관표의 전반적 맥락을 분석하면 대외경제 관계의 파급효과와 양상을 이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신동천·이석기(2014)<sup>13)</sup>에서 제시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영향력 계수를 구한 결과, 북한에서 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은 경공업(1.377), 중화학공업(1.286), 건설(1.231) 순으로

13) 여기에는 농림수산, 광업, 경공업, 석유석탄, 중화학공업, 전기가스, 건설, 도소매음식숙박, 수송통신, 정부서비스, 기타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경제 전반에서 보다 동적인 변화를 관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각 산업의 상호 연계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대외관계 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더욱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타났다. 반면 영향력 계수가 1 미만인 산업으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0.595), 기타서비스(0.714), 광업(0.760)이 포함되었다.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경공업(2.757), 중화학공업(2.539), 건설(2.466)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공업에 100이 투입될 경우 276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과는 무역, 투자 등에서 광업 비중이 높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반면, 러시아와 경제 관계는 매우 좁은 분야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의 대리 수출은 일부 의류와 관악기에 국한되었고, 수출 금액도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수입 역시 원유, 석유, 일부 식량 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투자 측면에서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부 화물 운송 및 중공업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렇게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경제 관계는 산업 간 연계성을 약화시키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최근 경제협력은 군수산업에 더욱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북한의 군수산업은 “인민경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군산복합체를 통해 자체 공장과 광산을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38 North, 2023). 군사분야에 예산과 자원을 먼저 배분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제한하게 했다. 이는 군수산업이 일반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그만큼 최근 러시아와 군수산업 협력이 인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IV. 평가 및 시사점

단기적 차원에서 보면, 북·러 협력은 제재와 코로나19 봉쇄 이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력 파견, 무기 수출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외화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갈망했던 바와 같이 러시아는 북한에 생명줄(lifeline)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고, 무기공장 가동을 통해 산업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일부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도 더할 수 있는데, 이미 지난 2024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됨으

로써 제재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바 있다. 무엇보다 현재 상황은 재래식 무기와 인력·병력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 식량, 에너지, 외화가 필요한 북한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이므로 '전쟁이 지속되는 한' 이 같은 관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는 전쟁으로만 약 100만명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북한 역시도 러시아에 인력 및 병력을 얼마든지 파견할 용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14)</sup>

하지만 여기에서 '양국의 필요'에는 '전쟁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아주 강한 전제 조건이 붙어있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언한 대로 이번 전쟁이 어떠한 형태로든 종료된다면 서로의 필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일이다. 향후 러시아가 북한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면 전후 복구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전략적 가치는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전쟁 이후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에 군수공장의 역할을 맡길 것인지 불분명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행보를 같이 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만큼 전쟁 이후 양국의 관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올인'이 위험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장 북한경제 차원에서도 '러시아 올인'은 기회비용이 커 보인다.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고는 '북한경제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논의를 시작하였다. 당연히 이에 대한 결론은 '대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다. 특히 본고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 한계를 넘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와 경제협력만으로는 북한경제 발전에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한 데에는 중국과의 대외무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러시아는 이 같은 질적 요건들을 중국만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교역 측면에서 보면, 양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가 달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바가 다르다. 무기 수출을 통해 러시아와 무역을 늘린다고 해도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제한적이며, 한정된 자원을 이에 집중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필요 이상으로 커 보인다. 조남훈(2024)은 "대규모 무기 수출의 파급효과가 다른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는 "북한 군수 경제분야의 특징인 분리성"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즉, 군수분야의 폐쇄성 때문에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

14) 이러한 부족 현상은 2022년 9월 시작된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으로 본격화되었는데, "실제로 30만~50만은 징집되었고, 나머지는 징집을 피하기 위해 조지아, 핀란드, 카자흐스탄, 몽골 등 인접국으로 국경을 넘어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두뇌 유출도 심각했는데, 전쟁 이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위 대학에 소속된 최소 270명의 학계 인사가 러시아를 떠났고 이 중 195명은 러시아 국적"이라고 확인했다 (Gorenburg 외, 2024).

측면에서도 러시아가 대북 투자를 한다면 주로 군수 관련이나 이벤트성 인프라 사업일 텐데, 이는 파급효과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해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선택이 되지 못한다. 관광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양국의 인적 교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극동지역의 경제 규모 및 수준, 서부에 위치한 주요 도시에서의 북한 관광에 대한 수요, 열악한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sup>15)</sup>

물론 현재 북한 당국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가 ‘경제발전’보다는 ‘체제 유지’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은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핵 무력 및 재래식 무기를 아우르는 군사력 강화, 대남 긴장 고조 등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제재와 코로나19 봉쇄 이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비공식부문을 통제하고 긴장 국면을 지속시키는 것은 북한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러시아 올인’ 기조는 중장기 차원에서 안정적이지 않으며, 경제의 질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15) 다만 노동력 파견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벌목, 광업, 건설 등에 집중되었던 분야가 각종 자연과학, 엔지니어링 전문 기술직, 일반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 수산업, 운전 기능직 등으로 파견 분야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 참고문헌

- 김지연 외,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KIEP 연구자료, 13-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p.64~72.
- 김한규,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과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제21권 7호, 2019, pp.29~47.
- 신동천·이석기, 「북한 산업구조와 대북투자의 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2014-14, 산업연구원, 2014.
- 이상근, 「북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의미와 한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 브리프』, 제587호, 2024, pp.2~4.
-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KDI 연구보고서, 2013-05,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재영 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KIEP 연구보고서, 12-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78.
- 이종규,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1-07, 한국개발연구원, 2021, pp.22~70.
- 장형수,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pp.165~190.
- 조남훈,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26권 1호, 2024, pp.117~129.
- 최영운,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제19권 1호, 2017, pp.101~121.
- 홍제환,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그 한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4-25, 2024, p.4.
- Gorenburg, Dmitry., Samuel Bendett, Ken Gause, Pavel Luzin, Gabriela Iveliz Rosa-Hernandez, Paul Schwartz, and Elizabeth Wishnick, “Crafting the Russian War Economy: The Effects of Export Controls on Russia’s Defense Industrial Production,” *Center for Naval Analysis*, October 2024.
- Open Source Center, *North Korea – 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Partners, 2004–2011*, OSC Report, 1 March 201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680 (2023)*, 7 March, 2024, pp.50~374.

<웹사이트>

38 North, “What Do Weapons Sales to Russia Mean for North Korea’s Economy,” September, 2023(<https://www.38north.org/2023/09/what-do-weapons-sales-to-russia-mean-for-north-koreas-economy/>, 접속일: 2024. 11. 20).

『뉴시스』, 「북한-러시아 전세기 증편 합의」([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0\\_0002966244](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0_0002966244), 접속일: 2024. 11. 22).

러시아 연방 통계청(<https://eng.rosstat.gov.ru/>, 접속일: 2024. 11. 20).

KITA(<https://www.kita.net/>, 접속일: 2024. 11. 20).

KOTRA, 북한 대외무역 동향([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530](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530), 접속일: 2024. 11. 20).

NK News, “Record Number of North Korean Students Entered Russia in Q3,” 11 November, 2024(<https://www.nknews.org/>, 검색일: 2024. 11. 20).

『Voice of America』, 「북한 관광상품 가격 다양·중국·싱가포르는 남북한 가격 비슷」, 2019. 9. 5(<https://www.voakorea.com/a/5070275.html>, 접속일: 2024. 11. 20).